

임실 호암 봉화, 봉화 배수시설 최초 발견

삼국시대 봉수 구조 연구 · 가야세력 정체성 밝히는 데 기여 기대

임실군이 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과 지난 15일 임실군 관촌면 도봉리 소재 임실 호암 봉화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자문회의는 관장근 군산대 교수, 한수영 호남문화재연구원 실장, 전주문화유산연구원 발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암(범바위산, 해발 366m)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호암 봉화의 추정 봉화시설은 자연 암반 위에 원형으로 석재를 두른 형태이며, 암반을 20~30cm 가량 깎아 만든 배수로가 시설되어 있다.

배수로는 봉화시설의 서쪽과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남-북 방향으로 이어지며, 길이는 220cm, 너비는 17cm 내외이다.

이 밖에도 자연암반을 계단 형태로 다듬어 만든 등봉(登峰) 시설이 확인되었다.

특히, 호암 봉화의 배수로는 그동안 조사된 봉화시설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향후 삼국시대 봉수의 구조 연구는 물론, 전북지역 가야세력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호암 봉화는 기존에 알려진 경각산 봉화에서 출발하는 임실봉화리와 별개로 임실성미산성과 고덕산봉화를 이어주는 관촌봉화리로 해당한다.

호암 봉화는 지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범 바위산에 오르면서 서쪽



임실군이 전주문화유산연구원과 지난 15일 임실군 관촌면 도봉리 소재 임실 호암 봉화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으로 임실 신령면 일원의 삼진강 유역이 한 눈에 들어오고, 동쪽의 고덕산과 북쪽의 성미산도 잘 조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발굴은 전북 가야문화사 발굴과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

으며, 삼진강 유역의 봉화산 봉화에서 토축 봉화의 흔적을 찾는데 이어 호암 봉수에서 또 다른 형식의 봉화를 발견한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익산 왕궁리유적전시관, 12월 4일까지 휴관

백제 왕궁 ICT 역사관 조성 공사 착수로 인해... 이미 예정된 교육·행사는 진행

익산시 왕궁리유적전시관이 '백제 왕궁 ICT 역사관' 조성 공사로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

시는 전시관 내 '백제 왕궁 ICT 역사관' 조성 공사를 본격 착수해 19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임시 휴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세계유산 왕궁리유적의 보존관리 차원에서 국비와 도비·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시관 리모델링과 가상체험관 조성 공사도 함께 시행된다.

또한 전시물을 안전하게 이전하고 세계유산 도시 위상에 걸맞은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예정된 교육과 체험 행사의 경우 휴관 기간 상관이없이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이후 새로 개관될 주요 전시관은 역사 전시실과 가상체험관, 발굴 체험실로 구성된다.

특히 역사전시실에서 선보일 '키네틱 실감 미디어 룸'은 국내 박물관에서는 최초로 구현

되는 기술로써 백제 왕궁의 조성과정과 발굴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가상체험관에서는 문화유산에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관람객들에게 과거 역사를 실재처럼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북 최초로 조성하는 개방형 수장고는 관람과 문화유산 교육·체험이 가능한 전시형 수장고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관 관계자는 "휴관 기간 동안 방문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야외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새롭게 조성될 이번 백제 왕궁 ICT 역사관이 지역주민들의 문화 자긍심을 높이는 멋진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왕궁리유적은 박물관 휴관과 관계없이 관람이 가능하다.

/익산=정양원 기자

“코로나 시대, 다시 책을 꺼내 들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설문 조사

코로나 시대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독서량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6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코로나 시대 독서 문화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서 경험자(전체 89.6%) 중 절반 가까이(46.9%)가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는 책을 읽는 시간과 양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19가 발생한 지난해 이후 1~5권 읽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38.1%를 차지했다. 6~10권(16.6%)을 읽었다는 응답은 그 뒤를 이었다.

책을 거의 읽지 않거나(8.5%), 전혀 읽지 않는(10.4%) 사람들은 10명 중 2명이었다.

엠브레인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전보다 독서량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변화로 읽혀졌다”며 “특히 20대의 독서량 증가가 눈에 띄었다”고 밝혔다.

20대 젊은 층(20대 58.1%, 30대 43.9%, 40대

42%, 50대 43.7%)과 대학(원)생(60.7%)의 독서량이 늘었다.

엠브레인은 “아무래도 코로나 발생 이후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책 읽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전체 45.9%, 동의율)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 시대에 주로 많이 읽은 책은 소설과 자기계발서가 1, 2위를 차지했다. 소설이 47.3%, 자기계발서가 40.2%를 차지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주식, 부동산, 투자 관련 서적을 찾는 사람들도 34.4%로 많았다. 특히 주식투자 열풍을 주도하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30대가 주식, 부동산, 투자 관련 서적(20대 31.1%, 30대 44.3%, 40대 35.1%, 50대 27%)도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명 중 1명(50.4%)은 한국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뉴시스

최흥선 국립익산박물관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최흥선 국립익산박물관장이 지난 16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작한 캠페인으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표어가 적힌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최흥선 관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전 국민이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을 기억하고 이를 실천해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익산박물관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전주박물관 홍진근 관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최흥선 관장은 다음 참여자로 익산 왕궁리유적전시관 임관섭 관장,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김중규 관장,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최용석 원장을 지명하며 캠페인을 이어갔다.

/정은성 기자



최흥선 국립익산박물관장이 지난 16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군산대 이현주 교수, 군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협연

22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서

군산대학교 음악과 이현주 교수(플루티스트)가 오는 22일 개최되는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41회 정기연주회에서 협연한다.

22일 저녁 7시 30분 군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는 이 공연은 뛰어난 지휘 테크닉으로 주목받는 객원지휘자 김지환이 지휘하

고, 널리 사랑받는 클래식 작품들인 베토벤의 7번 교향곡, 생상의 죽음의 무도, 모차르트의 플룻협주곡 2번이 연주된다.

이현주 교수는 이날 협연을 통해 청중을 사로잡는 정열적이면서 완숙한 작품 해석을 통해, 서정적이고 우아한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